



- ① 본회를 비롯 가금관련 단체장들이 '화이트 닭살데이'를 알리는 모습
- ② 본회 서성배 회장(왼쪽 두번째)이 시민에게 닭고기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닭요리를 시식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선 모습
- ④ 내빈들이 닭고기를 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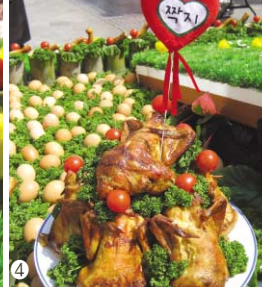
화이트 닭살데이 행사 개최

닭고기 먹고, 닭살데이트 즐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4월 9일, '화이트데이'가 돌아왔다.

본회를 비롯 가금관련 단체와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서울 동대문 두 타빌딩 앞에서 '화이트 닭살데이' 선포식과 함께 다양한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화이트 데이'를 제안한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을 비롯 본회 서성배 회장,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농협 남경우 축산경제대표, 연예인농촌돕기운동본부 김해권 회장과 탤런트 이일화, 이병욱 씨 등 가금관련 단체



- ① 닭모형의 인형이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감초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치킨볼로 만든 닭 조형물
- ③ ④ 닭고기 요리가 예쁘게 코디되어 있다.
- ⑤ 내빈들이 닭고기 무료시식회에 적극 참여, 시민들에게 맛있는 닭요리를 제공했다.
- ⑥ 닭살커플 닭고기 빨리먹기 대회가 펼쳐지는 모습
- ⑦ 연예인농촌동기운동본부 김해권 회장과 텔런트 이일화, 이병욱 씨(왼쪽부터)도 행사에 참여했다.
- ⑧ 많은 시민들이 모여앉아 닭고기 요리를 즐기고 있다.
- ⑨ 가장 닭살스러운 커플에 한표를!
- ⑩ 닭고기로 사랑을!



장과 연예인이 참석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색 닭고기 요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사랑의 닭백숙을 제공하는 행사에서 탈피, 닭고기 주 소비층인 젊은층을 겨냥해 '화이트 닭살데이'로 행사명칭을 변경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도 젊은층의 기호에 맞게 이색 닭고기 요리 무료 시식회를 비롯 닭고기를 이용한 조형물 전시, 닭살커플 선발대회, 닭살커플 닭고기 빨리먹기 대회, 닭살사진 컨테스트, 닭살문자 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2003년 당시 화이트데이 행사 진행 모습



4월 9일이 왜 ‘화이트데이’ 일까? 9월 9일은 왜 ‘구구데이’ 일까? 행사 취지 그대로 바르게 전달돼야...

지난 4월 9일 ‘화이트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사실, 당일 행사장소인 두타빌딩이 정기휴무인 관계로 유동인구가 적어 애써 준비해온 행사가 자칫 쓸령해질까봐 우려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화이트데이’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게다가 참여한 시민들만큼이나 모인 취재진의 열기는 그야말로 뜨거웠다. 기자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육’ 먹을 준비하고 앞에 나가 카메라 셔터를 1~2번 누르고 얼른 도망쳐와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치러진 ‘화이트데이’ 행사. 그 의미도 바르게 전달됐을까? 행사가 끝난 후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화이트데이’의 뜻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SBS TV ‘뉴스와 생활경제’ 중 ‘맛있는 경제’ 코너에 소개된 내용중 (<… 농협중앙회가 매년 99일째 되는 날인 4월 9일을 닭울음소리와 같다고 해 ‘구구데이’로 정했는데요, 거기에 하루가 빠진 100일의 ‘백’자를 따서 ‘화이트 닭살데이’라 부르며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 닭고기의 주 소비층인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연합뉴스(<http://tvnews.media.daum.net/part/economic/tv/200704/09/yonhap/v16330318.html>)에 따르면 (<… 한편 농협은 “매년 4월 9일은 1년 중 99일째 날로 100일(百日)에서 1(-)을 뺀 白日(White-Day)이며, 99(구구)라는 숫자가 닭을 연상시켜 ‘화이트 닭살데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스컴(<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4/09/newsis/v16330768.html>)에 따르면 (<…9일이 ‘닭살 커피데이’가 된 것은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시작한 지 백일째 되는 날을 만

남 기념일'로 삼는데 따른 것이다...)'이라고 나와 있다.

이 세 기사에는 '화이트데이'의 어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다. 얼핏보면 화이트데이와 구구데이의 의미를 짝뽕(?)해 놓은 듯하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다른 매스컴(<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04/09/nocut/v16332488.html>)에서 그나마 바른 의미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도 행사 시작년도는 틀리게 나와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예로부터 100세 때 잔치를 벌이던 것에 착안해 한 해가 시작된 지 99일째인 4월 9일에 하얀색 고기인 닭백숙 등을 먹자는 취지의 화이트데이 행사를 2005년부터 벌여왔으며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뭐 어때서? 행사만 잘 치르면 됐지. 그것의 의미가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분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가 본래 뜻대로 전해지지 않고, 매년 다른 의미로 재해석된다면 결국 행사를 기획한 근본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물론 그동안 서울 종묘공원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어르신들께 닭백숙을 제공하던 것에서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이트데이'를 '화이트 닭살데이'로 변경한 의도는 알겠지만 '화이트데이'의 행사가 일반 시민들에게 정착되기 전에 명칭을 변경해 행사를 치른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다.

'화이트데이'와 '구구데이'는 지난 2003년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만들어져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당시 가금과장)은 2003년 당시 기존 3월 14일 'White Day(白日)'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4월 9일, 9월 9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하자는 반짝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람의 장수와 건강을 축하하는 날인 백수(白壽)는 백살(百歲)에서 한 살(-歲)을 뺀 나이로써 99살(白歲)에 잔치를 한다.


이상진 과장은 이 점에 착안하여 White Day, 즉 白日은 1년중 백번째 날에서 하루를 뺀 날자로 1월 1일에서 99일째 되는 날, 즉 4월 9일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백일(白日)로써 앞으로 백일(白日)인 4월 9일을 'White Day'로 정해 이날 만큼은 백색육(White meat)인 닭고기를 백숙(白熟)으로 먹는 날로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상진 소장의 제안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2003년 4월 9일 당시 대전 유성 소재 가금과내 벚꽃이 만개한 뒤뜰에서 가금관련 연구원들의 모임인 계연회(鷄研會) 회원들과 본회를 포함한 업계관계자, 전문지 기자 등 약 60여명이 모여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육용 재래닭 바비큐 구이와 본회 회원사에서 제공한 닭고기 가공품을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가 지금의 '화이트데이' 행사의 시초가 된 것이다.

또 이상진 소장은 예로부터 닭을 불러모을 때 "구구"라고 말해 온 점에서 의미를 따와 9월 9일을 "9·9Day"로 해 이날 또한 닭고기 먹는 날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매년 9월 9일이 되면 구구데이 행사가 전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해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관, 가금관련 단체 주최로 열리는 토종 '화이트데이'와 '구구데이' 행사가 바른 의미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닭고기 소비촉진 확산에 받침돌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취재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